

강론 ...

영화 다빈치코드



서석희 신부
(교구청 홍보국장)

〈다빈치코드〉가 지난 주말에 개봉되었다. 예수님과 막달레나가 결혼해 후손이 존재하고, 이것이 2천년 동안 시온 수도회가 몰래 간직해온 성배의 비밀이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다빈치코드. 화제가 됐지만 관객들과 비

평가들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들의 말대로 소설 〈다빈치 코드〉의 저자, 댄 브라운의 스토리텔러(이야기꾼)로서의 탁월한 상상력을 그대로 영화로 옮겨다 보니,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하기엔 역부족인듯 싶다. 둘 다 출발점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상상력으로 꾸며서 짜집기를 해야 하는 내용이기엔 한편의 미스터리물을 즐기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차라리 소설 〈다빈치 코드〉의 모티프가 되는 5가지의 내용을 영화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르게 만들어갔다면 영화적인 상상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영화가 소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큐멘터리 흉내를 내다보니,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소설이나 영화는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모티프를 각자의 분야에 걸맞게끔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코드〉는 성공했지만, 론 하워드 감독의 〈다빈치코드〉는 팩션(fact + Fiction)영화가 갖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상상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내용일수록 누가, 어떤 방식의 상상력으로 잘 꾸며내느냐가 흥행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원래 사람들이 소설 〈다빈치코드〉에 자극을 받았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덧붙여진 상상력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문학적 전통이 강한 영국이 그렇게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냈던 그 원동력은 수많은 스토리텔러(이야기꾼)들의 양성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오래된

생이나 사건'을 두고서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룹을 이루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컴퓨터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 다음 사람이 댓글을 달아가듯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즐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 배경을 두었기에 '해리포터'라는 환상적인 인물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있는 물건이나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문화의 산물이 또한 댄 브라운의 〈다빈치코드〉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과 영화인 〈다빈치코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력일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TV의 히스토리채널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에서는 소설이나 영화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다빈치코드〉에 접근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도 어느 관점에서 기술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다큐멘터리라는 특성상, 상상력보다는 사실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빈치코드의 감춰진 진리〉, 〈다빈치코드의 진실을 찾아〉, 〈다빈치코드의 기원〉 등 소설과 영화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다보면 사실과 상상력의 차이를 구분하게 된다. 다빈치코드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들은 소설 〈다빈치코드〉가 언급한 장소를 따라 육천 킬로미터나 되는 곳을 찾아서 다양한 나름대로의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다빈치코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상상에 불과한 이야기로 내던진 온갖 이야기를 한데 모은 것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긴 하지만 모두가 다 허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빈치코드〉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는 왜 이런 이야기에 솔깃하게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성모 마리아와 성녀 엘리사벳(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축일)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즈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루가 1,39)

성모 마리아와 성녀 엘리사벳은 사촌(四寸)으로 알려진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고,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이다. 하느님 나라에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두 여성은, 그즈음 두 분 다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다. 한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며 길을 닦는 세례자 요한이 몸 안에 계셨고, 한분은 우리의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계셨다.

이 두 여성의 아기들은 모두 여년의 잉태로서가 아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내리심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으로, 엘리사벳의 잉태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아마도 마리아는 젊디젊었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상당히 들었었을 것이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아마도 엘리사벳의 산월(産月)은 마리아보다 더 가까웠을 것이다.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사촌의 산전후(産前後)도 돕고, 몸속의 아기도 잘 돌보려고 하는 마리아의 깊은 마음이 드러난다.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사촌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겸손과 행동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사촌의 방문을 받고, 성령을 받은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 그녀의 신앙과 하느님 찬미가

나타난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에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했었다. ‘저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말하셨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분보다 더 겸손한 이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자요한의 역사적인 만남이전에, 이미 두분의 아름다운 어머니들은 만남과 돌봄의 삶을 사셨음을 알 수 있다.

마리아가 사셨던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이 살았던 유다산골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곳이다. 그때부터 세월이 2천년쯤이나 지난 지금에도 나자렛과 유다산골의 아인카렘까지는 보통거리가 아니다. 아마도 그때의 교통수단으로서는 적어도 며칠은 걸렸을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 행동,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고 아름답다. 엘리사벳 노래의 답가로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믿음, 겸손, 삶이 다 드러난다.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으니...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루가 1,46-53에서)



입당송 사도 11:1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1:1-11

회답송 시편 47(46),2-3,6-7,8-9(◎ 6)

◎ 하느님께서서 환호 소리와 함께 오르시도다. 주님께서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르시도다.

제2독서 에페 1,17-23(또는 4,1-13 또는 4,1-7,11-13)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6,15-20

영성체송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치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을수록 또는 명예가 있다면 또는 가족만 건강하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돼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늘 행복한 리듬만을 타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가 어떤 리듬 안에 있든지 그분의 은총 안에 있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노랫말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내겐 대녀가 있다. 그 부부는 둘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챙겨가며 사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감사함을 느낀다.

그 부부가 사는 모습은 정말 하느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대녀의 남편 사랑은 하늘을 받드는 듯하다. 형제님 역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참고 양보하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한다. 서로에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며 사는 모습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려는, 둘이 하나인 사람들인 것 같다. 아마 누구든지 주님의 은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부부와 조금만 친해져도 하느님이 어떻게 그 가정에 머무시는지를 보게 될 것

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한 가정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는 자주 내 가족 안에서 하느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의식 없이 넘어가 버리는 데서 오는 갈등에 상처를 입고 화를 터트리곤 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 대녀 부부의 삶을 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체의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작고 소박한 그 부부의 삶 안에서 꾸밈없이 사는 나자렛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웠을 모습도 짐작해 본다.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조금은 부족한 데서 나오는 행복의 향기가 아닐까

김유경(루피나)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숨머리 생각



한병기
(프란치스코)



● 전주 카리타스봉사단 창단미사 및 발대식



사랑, 자선, 나눔의 정신으로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히 투입, 빠른 복구와 이재민을 긴급구호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전주 카리타스 봉사단이 21일 이병호 주교의 집전으로 창단 미사를 봉헌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김동욱 기자

● 삼천동 성당 경로 관광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5월 23일(화) 본당 신자 65세 이상의 어르신 100여명이 경로관광에 나섰다. 신부와 수녀 그리고 봉사자 20여명이 함께 이순신 드라마 촬영 세트장과 부안 내소사를 관광했다. |서장경 기자

● 금암동 성당 애령회 영보은혜의 집 방문

금암동 성당 애령회(주임=김요안신부, 회장=이상택)는 지난 21일 나환자 양로원 시설인 영보 은혜의 집(원장=박요안나수녀)을 찾아 홀로 외롭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같이 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사랑의 후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기수도 기자

● 서신동 성당 성모의 밤

서신동 성당(주임=전대복 신부)은 지난 5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에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기원하는 성모의 밤 축제를 열었다. 평화로운 가정, 성가정, 행복한 가정을 기원한 이 행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마음과 정성을 담은 꽃과 촛불을 봉헌하며 소원성취를 빌었다. |유장근 기자

● 가톨릭 신학원 봄소풍

교구 가톨릭 신학원(원장=김선태 신부) 교리교육과, 성서교육과 재학생들은 봄 소풍을 갖고 자연 속에서 친교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교리교육과 1학년은 17일(수) 안면도, 2학년은 15일(월)지리산 바래봉, 성서교육과 1

학년은 16일(화)내장산 백양사, 2학년은 19일(금)무주 안성에서 각각 일정을 갖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오안라 기자

● 전통 성당, 무지개 가족 봄나들이

전통 성당(주임=김준호 신부) 사회복지분과는 지난 5월 21일(주일) 1급 장애인 생활수용시설인 소양 '무지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진안 마이산과 용담댐 일대를 돌아보는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홍보국 정리

● 교구 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모임

교구 가톨릭 미술가협회(지도=현유복 신부, 회장=박종구)는 지난 5월 15일(월) 정기모임을 갖고 제2기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에 박종구, 총무에 황의성, 재무에 문환희씨를 선출했다. |홍보국 정리

● 천호성지 성당 기공식



교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천호성지(관장=박대택 신부) 성당 신축 기공식이 지난 5월 20일(토) 이병호 주교 주례로 거행됐다. 총 건축비 30여억원이 소요될 성당은 2007년 4월 말 완공될 예정이며 건축비 중 10억원을 희사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천호성지는 피정의 집 내에 있는 성당이 협소해 교육 및 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대지 축복식을 주례한 이병호 주교는 "전주교구의 현안인 가톨릭센터, 남골성당 등 일이 많아 천호성지 성당 신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많은 비용 희사해 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다"며 독지자에게 치하하고 "설계에 많은 시간 보낸 만큼 시공에도 각별히 신경 써 길이 남을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시공회사 관계자들에게 부탁했다. |이관영 기자

건지산 매실

북쪽방향 매실 고도의 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교우분 특별우대

이기천(요셉) 영모비(테레사)

☎254-3642 / 011-9646-3642

KIA 기아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등 전차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 간 : ☎(063)254-7226

담당:차량 김영기(스테파노), 정영주(요셉파나)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전신), C-T촬영(전신)
X-Ray 특수촬영 및 투시
칼라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박인숙(아나타시아)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정진영

☎(063)278-1312~3

NEW ZEALAND International school

(아무에게나 배우는 것이 아니다!!)

대표 : 배석환(엘리아) 한중옥(크리스티나)

상담 : 283- 5927(참관수업 예약)

www.nzis.co.kr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초혼 · 재혼)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올바른 생활지도 · 종교교육 · 체험학습 주안점



팔복성모어린이집은 '생각하는 어린이, 부지런한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 라는 원훈으로 어린이들에게 하느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팔복성모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만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경증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의 통합된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와 한부모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몬테소리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습관 지도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 감각, 언어, 수, 문화 등 5개 영역을 어린이의 발달 단계와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답게 순수하고 정직하

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체험학습을 종교교육과 함께 지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팔복성모어린이집은 (재)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1997년 3월 20일 이병호 주교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만 1세~6세 어린이 대상
경증 장애 아동 통합 교육
맞벌이 · 한부모 아동 특별반 운영

현재 제 4대 원장이신 김마리스피리트 수녀님을 중심으로 서른여섯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다해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이나 특별히 어려운 아이를 위해 후원해 주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212-1618, 011-251-5556

E mail : palboksm@hanmail.net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젠티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2006년 여름 성음악 연주

일시: 8월 16일(수) 오후 2시~19일(토) 오후 4시 (2막 4일)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부천시 역곡동)

내용: 전례악,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발성, 합창지휘등

강사: 박대중 신부, 최호영 신부, 홍인식 수녀의 전문가

연수비: 20만원(5월까지 입금시 10%할인) 청년은 15만원

입금계좌: 311-102212-02-008우리은행 박재광

후원: 가톨릭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문의: 02-3273-8878 한국 세실리아 성음악협회 사무국

www.cecilkorea.com.ne.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아동입양 및 후원상담

문의 : 02-764-4741

www.holyfcac.or.kr /

www.성가정입양원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싱크대 제조 전문업체

김영대(갑열)

문의 : 275-9236~7

011-294-6471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일시: 6월 4일(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 011-9319-1690

대상 :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마리아 남자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성소모집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자

담당 : 김일영(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 080-749-8547



교구장 일정

- 인보성체 수도회 종신서원 예정자 면담
6월 1일(목)
- 하나님의 종 현장조사 법정 개정
6월 1일(목)
- 신학교 양성팀 관계자 회의
6월 3일(토) 오전 11시
- 견진
6월 4일(주일) 여산 오전 10시 30분

미사 · 행사 · 모임

- 전주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5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복지병원 후원회 월례강의와 미사
5월 29일(월) 오후 2시 성 바오로복지병원
차량운행 : 1차 낮 12시, 2차 오후 1시 20분
중앙성당 앞
- 군산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5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해성중 · 고 주보 축일행사 및 미사
5월 31일(수) 오전 10시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6월 1일(목) 오전 10시 덕진
- 신앙문화유산해설사 파견미사
6월 2일(금) 오후 7시
- 성모기사회
6월 3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컵스카우트 미사 지원
6월 4일(주일) 오전 8시 송광사
- 포콜라레 모임
6월 4일(주일) 오후 2시 복자성당 교육관
- 군산 하나회 미사
6월 4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 5월의 좋은영화
5월 31일은 선거일로 쉽니다.

사무장 겸 관리장 모집

1. 자격 : 영세받은지 3년이상 퇴신분,
대형면허 소지자, 컴퓨터 활용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 대형면허증사본,
세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제출처 : 전주교 슐내성당(T254-2770)

2006년 전주교구 성령대회

일시 : 5월 29일(월) 오전 9시~5시 30분
장소 : 전주우전천주교회(221-3711)
특별강사 : 다니엘 개그년 신부
(티오프신 마리아 수도회 소속)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일반 성소자 모임

일시 : 6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 전주 복자성당 수녀원
문의 : 042-253-6300, 010-4761-9217
비고 : 수시 상담 가능 02-707-5511

거룩한 말씀의회 성소모임

일시 : 6월 4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대전 본원
문의 : 011-9404-5637
김 사베리아 수녀
주제 : 제자가 되는 길

작은예수회 창립 22주년 회원감사제

대상 : 6월 7일(수)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특별강론 : 박효철 신부(청주교구), 박성구 신부
축하공연 : 민지환의 작은예수 연예인봉사단,
작은예수자매공동체
장소 : 경기도 원리 작은예수회 마을
교통편 : 지역별 출발 있음
문의 : 02-777-6444, FAX : 02-777-8815

- 제3회 천주교 전주교구 직원
(교구청직원, 사무장 · 원) 체육대회
6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해성중 · 고 체육관
문의 : 교구청 직원 친목회장 소권수
285-0041, 010-9017-1579
사무장(원) 연합회장 하석수
858-4721, 017-651-7437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 교육
5월 29일(월) 효자동
-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1차 피정
5월 29일(월)~31일(수) 천호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교육 2단계(군산지구)
6월 1일(목) 오후 2시 나운동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2단계
(익산 남 · 북 지구)
6월 2일(금) 오후 2시 영등소라

기타

- 전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낱골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 전주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종교음악의 밤
5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
문의 : 281-2766, 253-5250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후원사업
저소득층 가정 1:1 결연 후원
후원계좌번호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전북은행 541-13-0311676
문의 : 232-0334, 286-0334

2006년도 함께하는 여정 2단계 교육일정표

1. 교육일정

지구별	기간	일 정	장소
전주지구 김정고부지구 임순남 무진장 지구	4일	6/7(수) 오후 2시~5시 6/14(수) " 6/21(수) " 6/28(수) "	삼천동 성당
군산지구	4일	6/1(목) 오후 2시~5시 6/8(목) " 6/15(목) " 6/22(목) "	나운동 성당
익산남 북지구	4일	6/2(금) 오후 2시~5시 6/9(금) " 6/16(금) " 6/23(금) "	영등 소라 성당

2. 참가대상 : 함께하는 여정 1단계 수료자
3. 참가비 : 총 4회 1인당 12,000원
4. 준비물 : 필기구
5. 참가신청 : 교구청 사무국 (FAX : 285-0049)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 의 정
 유제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서목회장: 이 면 후
 F A X: 563-1782

1. 오늘은 주님 승천대축일입니다.
 1부: 공식미사, 2부: 점심, 3부: 구역별 게임 등
2.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신입: 문옥식(추가) 5만원
 총신입액 - 4,453만원 총납입액 - 3,413만원
3. 예비신자 인도에 적극 동참합니다. : 환영식 5월30일
 ※ 예비신자 카드를 제대 앞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4. 중·고 장학생 추천: 3세대 각 2300,000원
5. 병자봉성체: 1일(목) 후2시 6. 성체강복: 1일(목) 후7시30분
7. 다음주모임: 꾸리아, 아브라함회, 제대회 - 공식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1,255,700원 ■ 교무금: 1,190,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문 규 현
 유제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조 건 규
 F A X: 581-1334

- ◎ 교구청사 신축현금과 분당개보수 신립에 정성을 다합니다.
1. 사랑하움모친, 예언자의모후 꾸리아 : 교중미사후
2. 수녀님피정: 29일(월) - 6월3일(토)까지
3. 사목회: 4일(주일) 교중미사후
4. 본당 사회사목 분과에서는 노력봉사를 필요로 하신분을 돕고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신 분은 사회사목분과나, 분당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5. 신축현금 신립누계: 203,908,000원, 입금누계: 89,553,270원
6. 금주청소: 5구역
 ■ 지난주 봉헌금: 1,062,600원 ■ 교무금: 1,125,000원 ■ 2차현금: 201,000원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 규 봉
 유제원: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최 월 만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igdong.or.kr

- ◎ 가톨릭센터 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 ◎ 6월중 미사는 '다 양식'으로 봉헌합니다.
1. 호스피스 교육 ① 기간: 6월 19일~7월 19일(매주 월, 수 저녁 7시 ~ 10시)
 ② 접수: 각 단계별로 단계장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무실에서 접수하십시오)
- ③ 참가비: 35,000원(개인부담 - 15,000원, 분당지원 - 20,000원)
2. 환우봉성체: 6월 3일(토) 10시 30분 3. 등천공소 미사: 6월 4일(주일) 8시 30분
4. 금주모임: 아브라함회 베드로회(5월 28일 주일 교중미사 후)
5. 금주전례: 해설 - 이경철, 독서 - 김경복, 바그너
6. 성당청소: 화(5월 30일 셋별), 토(6월 3일 평화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275,700원 ■ 교무금: 1,435,000원
 ■ 교무미수금: 300,000원 ■ 가톨릭센터신축기금: 지난주 690,5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 정 권
 유제원: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김 인 권

1. 이번주 성서: 창세기 1장
2. 금주모임: ① L.M 꾸리아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구역(반)회장 모임 - 6월 2일(금) 미사 후
3. 성모의 밤: 29일(월) 후8시(당일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4. 유아세례: 6월 3일(토) 후5시 주만등등등등 1동 지참(신청: 사무실)
5. 신명공소 미사: 6월 3일(토) 후8시(본당출발 후7시 30분)
6. 17반 가정방문: 6월 1일(목) 전9시 30분부터
7. 감사헌금: 유희석(로마노)50,000원 ▶ 감사합니다.
8. 차주모임: 아브라함회
 ■ 지난주 봉헌금: 1,374,700원 ■ 교무금: 1,812,000원
 ■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730,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 중 신
 유제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 자 옥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ochon.org

1. 예비신자 입교식: 오늘
2. 제대회 성지순례: 3일(토) 천진암-전 7시출발
3. 감사헌금: 한금희, 유현숙, -각10만, 익명-9만
4. 센터 신축현금: 김숙자, 권순, 정성익, 박정순-각 10만
 안종표, 황기룡, -각 50만, 익명-200만 계 8,630만원
5. 센터 신축 2차현금: 오늘
6. 성소후원 회비 납부의 날 : 다음주일
7. 금주모임: ①꾸리아-교중미사후
 ②안나회-2일(금).
 ■ 지난주 봉헌금: 1,574,200원 ■ 교무금: 2,580,000원

즐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송 영 진
 유제원: 581-0242 수녀원: 581-0241 서목회장: 박 경 후

1. 성모의 밤 행사: 31일(수) 오후 8시, 성모동산
2. 금주모임: 요셉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차주모임: 사목회 - 6월4일(일) 미사후
4. 만석공소미사: 오늘 오후 3시
5. 6월 차봉사자: 송정희, 이순덕, 김종선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정 성 수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 병 순

- ◎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15,13)
1. 금주: ① 꾸리아- 교중미사후
 ② 금요순회미사- 모라리구역,
2. 차주: ① 성전건축2차현금 ② 첫주일 제모임 ③ 주일학생미사
3. 특별헌금: 박 마리안나 10만, 김중수, 최 다리아 각5만 ※ 감사합니다.
4. 금주: 해설- 이복철, 독서- 김준식, 한덕자
5. 차주: 해설- 양희정, 독서- 최병순, 문명선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범 성 배
 F A X: 544-5652 서목회장: 손 영 일

1. 다음주일 모임: 꾸리아, 성모회 - 공식미사후.
2. 오늘: 해설 - 반영복, 독서 - 원평신자, 정준환.
 봉헌 - 원평, 수류 사목회장.
3. 다음주일: 해설 - 정준환, 독서 - 강경복, 진정자.
 봉헌 - 김한규부부.
 ■ 지난주 봉헌금: 431,900원 ■ 교무금: 130,0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 봉 순
 유제원: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 인 후

1. 성령강림 대축일 야외미사: 6월4일(주일) 전10시30분, 황도현
 ※ 미사 후에 나눔 잔치 및 가족 한마당이 있습니다.
2. 금주모임: 성신회-공식미사 후, 사목회-6월3일(토) 후7시30분
3. 공소 미사: 신기-6월1일(목) 후7시30분
4. 꾸리아 : 6월11일(주일) 전9시
5. 청소년 사목자 양성 연수(caffe) : 5월29일(월)~6월2일(금)
6. 함께하는 여정 2단계교육: 6월7일(수)~28일(수), 삼천동 성당
 ※ 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 대상-함께하는여정 1단계 수료자
7. 오늘은 애령회를 위한 2차현금이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17,500원 ■ 교무금: 830,00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유제원: 544-228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김 태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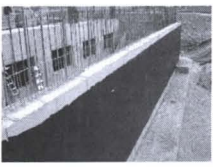
- ◎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1. 금주모임: 꾸리아
2. 차주모임: 성모회, 대건회, 화사회, 사목회(토)
3. 본당미사 참례공소: 용지 차주: 신암
4. 공소미사: 신암 차주: 용지, 와룡
5. 유아세례: 6월 17일, 11일까지 신청 마감
6. 성체강복: 6월1일(목), 환우 봉성체: 2일(금)
7. 감사헌금: 김지훈-이십만원, 임미경-오만원
 황삼용-일십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32,700원 ■ 교무금: 2,180,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 영 현
 유제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최 석 기

1. 금주: 성모의밤(5월30일) 환자봉성체(6월2일) 사목회의(6월2일)
 어린이 첫영성체식(6월3일어린이미사후)
2. 차주: 꾸리아(공식미사후)
3. 순합차구입 헌금: 김중섭-5만원, 송복래-2만원 익명-30만원 익명-5만원
 이만춘-5만원 김중운-10만원 최춘기-100만원
4. 순합차운행 봉사자: 금주-최석기(아오스당) 차주-유용산(바오로)
5. 금주전례: 해설-안금순, 독서-김현길, 오전회 봉헌-정만중 가정
 차주전례: 해설-최석기, 독서-김나기, 이영자 봉헌-이만두 가정
6. 성당청소: 1구역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577,400원 ■ 교무금: 400,000원

6. 미사안내: 금주 - 이순옥, 허인순, 차주 - 유관순, 이선녀
7. 금주전례: 해설 - 최준석, 독서 - 정갑동, 유관순, 봉헌 - 손수덕 부부
8. 차주전례: 해설 - 고영진, 독서 - 이순선, 이정숙, 봉헌 - 조팔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18,000원 ■ 교무금: 153,000원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5월 20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5,492,357	36.62%
사제단	1,000,000	814,281	81.43%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462,496	30.83%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6,990,942	38.84%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임실, 삼례, 옥봉, 고창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고산, 진안, 인후동, 황등
- 신축기금 배정액 50%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중앙, 둔율동, 오룡동, 월명동, 나바위, 여산, 용안, 신평, 신태인, 복자, 대야, 나운2동
- 신축기금 배정액 40%이상 납부한 본당 : 봉동, 소양, 서신, 용머리, 화산동, 우전, 서학동, 덕진, 팔복, 팔마, 솔내, 숲정이, 나운동, 조촌동, 신동, 영등동, 금마, 함열, 원평, 수류, 시기동, 순창, 쌍교동, 무주, 장수, 송학동

▶ 이색 사목현장.....효자동 성당 출산장려금 지급 ◀

생명의 존엄성 · 가정의 소중함 확산 ‘기폭제’



요즈음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5~49세 가임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1.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해온 우리교회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3만8000여명으로 2000년 63만 7000명에서 5년만에 20만명 가량이 줄었다.

이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 고용불안, 경제불황, 육아비

용 증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들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는 1년에 150만건에 달하는 낙태 등에서 보듯이 생명 경시 풍조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와 교회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교구 효자동 성당에서 출산장려책을 시도 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김병운 본당 신부가 제안한 출산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신자들에게 공표한후 올 1월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이 모두에게 지급기로 한 가운데 지난 2월 18일에 출생한 신생아 장채운(아네스)가 유아세례때 금반지를 선물로 받아 첫 수혜자가 되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그 시작은 작지만 아주 의미있는 효자동 성당의 출산 장려금 지급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한 것임을 알리고 실천하는 기폭제가 되어 교구내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홍보국)